기독교 인간관

- 한국인의 종교적 특성과 크리스천 리더십 -

배요한 목사 (신일교회)

<도입: 몇 가지 생각할 점>

● 국내에 소개된 리더십 이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
● 리더십학교: 한국인의 정서는? 그에 바탕한 리더십은? 서구의 리더십 이론과 어떻게 다른가?
→ 한국적 리더십과 기독교 리더십의 관계는? 기독교 인간관과 연관하여

1. 단군신화에서 살펴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정서

1) <신이해> 하늘의식: 하늘고향의식

① <각 종교 전통> 하나님 / 유교의 천인, 천인무간 / 동학의 인내천

② 무의식적 축적: 나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: 무의식적 반영

③ 무시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함 / 자존심이 매우 강함

<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? 한국인의 하늘고향의식의 반영>

① 언어습관: 존대말 (과 권위): 존중해 주어야 한다: '나를 알아보는 구나!'

<리더의 자세: 그 적용>

① 눈높이를 맞추는 태도 (겸손과 연관): 천인의식 발휘의 두 가지 방법

②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'천인'의식을 갖도록 / 존중받는 느낌 / 어색하고 서먹서먹하지 않게 해야 한다.

2) <인간이해> 우리주의

: 환인-환웅-단군으로 이어지는 가족 중심주의 (우리는 하나)

<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? 우리주의의 반영>

① 주어를 거의 생략: 사도신경.

② 가족중심적 칭호의 사회적 확대

③ '나' 대신 '우리' 사용.

* 인, 정: 초코파이 (오리온).

<리더의 자세: 그 적용>

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'우리는 하나' 라는 의식을 가지도록.

② 소박하고 작은 것에 감사: 온 교인, 각 소그룹이 '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'임을 느낄 수 있도록

③ 우리의 울타리 넓히기: 울타리 간 '구분'과 '분리'

* 짝기도 / 사랑의 터치 / 진심어린 주님의 사랑으로

3) <종교생활의 특성> 뜨거운 종교적 열심

: 100일 / 동굴 / 마늘과 쑥 <금식-기도원-작정기도와 같은 맥락>

① 하늘같은 존재: 공짜가 없다-수양의 필요성 (그래도 100일을 21일로! 봐주기철학).

② 곰과 호랑이의 특성 비교

③ 호랑이 보다는 곰이다: 곰이라야 수양한다.

<리더의 자세: 그 적용>

① 곰과 호랑이의 차이 / 묵묵하고 성실하게, 내면이 꽉 찬 사람: 곰이 되시길!

② 음식 / 기간 / 장소의 유사성

③ 지금도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한국인 (중요한 시점-교회의 자정 노력 필요)

④ 새벽기도 열심... 21세기에도 여전히... / 신앙의 열심이 필요 / 신앙 유형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('틀림'과 '다름'의 문제).

2. 한국인의 영성의 실천적 적용

1) 빌 2:5-11 (예수님의 리더십): 전적인 헌신과 순종 + 겸손 = 높이심

2) 어느 한 목사님 이야기 (영적인 모성애로...)

3. 한국 교회와 리더십 학교의 세계사적 중요성

1. 현 상황

- 서양: 해체주의 (해체주의 이후의 대안 부재 → 양극화:
  1) (종교) 다원화, 상대주의화
  2) 극도의 보수주의
- 동양: 우쭐거리기 시작하는 동양사상계 + 학문의 현대화 필요
- 한국: 사상의 핵심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음

2. 동양과 서양의 만남

- 현 세계의 변화: Globalization, Localization : Glocalization (세계지역화)
- 서양사상가의 동양에 대한 관심: 대안을 찾으려 부심하고 있다.
- 동양: 이제야!! 그러나 우쭐 거리고 자만해서는 안된다.

3. 한국과 한국교회의 중요성

- 서양의 발달된 학문 체계와 신학이 성행함 + 동양적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함
- 서양의 한계와 동양의 한계를 동시에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

4. 한국 리더십 아카데미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

- 겸손의 리더십 (빌 2:5-11)
- 시대의 대안을 만든다! <대안 공동체>
- 세계지역화에 대한 주체적인 안목과 준비 (Westernization이 아니다!)
-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